



도하아시안게임 D-46

3 '올드&뉴' 교차하는 도하

# 중동서 첫 亞 축제... 시내 전역 '공사중'

전통 아랍식 물담배(시샤)를 입에 문 젊은이가 MP3, 고화질 카메라 등이 장착된 최신형 휴대폰을 들고 연방 연기를 내뿜는다.

길 한쪽에는 최고급 사양의 벤츠와 고루한 옷감을 잔뜩 짊어진 나귀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서로를 응시하며 지나간다.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 39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15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걸프만(灣) 소국 카타르 도하의 시내 풍경이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할라 람지 마케팅-홍보 국장은 "이 곳은 전통과 첨단이 공존하며 또 교차한다"고 설명했다.

무려 900조m의 천연가스와 1천520억 배럴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 부국 카타르가 이제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걸프의 심장'으로 부상하려는 용틀임을 치기 시작했다.

우선 국고로 28억달러(2조6천574억원)라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번 대회에 쏟아부었다.

그래서인지 공항부터 시내 중심가까지

도시 전체가 온통 공사 현장이다. 대회 조직위는 아시안게임 필수 시설의 공정이 97% 완료됐다고 하지만 현재 시내 모습으로 볼때 대회 개막 이후에도 공사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자랑하는 시내 코르니시 주변에는 '두 집 건너 하나' 꼴로 대형 빌딩이 올라가고 있다.

반면 도심에서 몇 블록만 떨어져 나온 면 아랍식 재래시장 '수크(souq)'가 여전히 성업하고 있다.

시내에 자리잡은 알 아마드 수크에는 이슬람 전통 의상부터 먹거리, 장신구 등 온갖 전통 물품은 물론 살아있는 매까지 전시하고 있다.

도하 아시안게임을 스포츠 이벤트로만 바라보진 않는다.

'네 필생의 대회(the games of your life)'라는 구호처럼 한동안 정체돼 있던 이슬람 사회에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대한 물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시안게임을 통해 도하의 미래를 보려는 메시지도 분명하다.

1951년 인도 뉴델리에서 처음 성화를



영화배우 권상우가 14일 2006 도하아시안게임 성황봉송 주자로 선정돼 부산 해운대 동백섬 입구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들어올린 아시안게임. 직전 대회인 2002년 부산 대회까지 14번이 열렸지만 한 번도 중동에서는 바통을 이어받은 적이 없다.

# 프로농구 19일 '점프볼'



내년 3월까지 팀당 54경기 총 270경기 치러 2·3쿼터 용병 1명만 출전... 토종 활약 기대

출범 10주년을 맞게 된 프로농구가 경기 규정을 바꿔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19일 서울 삼성과 부산 KTF 경기로 2006~2007 시즌을 시작하는 프로농구 정규리그는 내년 3월25일까지 5개월간 팀당 54경기, 총 270경기가 펼쳐진다. 특히 이번 시즌은 2, 3쿼터에 외국인 선수가 1명만 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 그동안 외국인 선수에게 밀려 출전 기회가 많지 않았던 토종 빅맨들의 활약을 볼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2쿼터에만 외국인 선수 1명이

뛸 수 밖에 없었다. 또 파울을 당한 팀의 공격 제한 시간을 종전 24초에서 14초로 줄이면서 더욱 공격 지향적인 농구를 하게 됐다. 따라서 공격제한 시간 24초 중 14초 이하가 남았을 때 파울을 당하면 공격제한시간은 14초로 환원된다. 14초 이상이 남았을 때도 공격제한시간이 24초로 환원되지 않고 남은 시간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

우승 후보로는 전통의 강호 삼성과 원주 동부 등이 꼽히지만 12월 개막하는 도하 아시안 게임에 주축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변수가 있어 우승팀을 점치기가 쉽지 않다. 정규리그 중 이벤트로는 2007년 1월 28일과 30일 한중 올스타전, 2007년 3월1일 KBL 올스타전이 준비돼 있다. 타이틀스폰서는 현대 모비스가 맡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어깨동무하며 헤딩을

15일 대전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대전 시티즌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포항 조성현(오른쪽)이 대전의 슈터를 누르며 공중볼을 가로채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 대전이 2-1로 승리하며 꼴찌 탈출에 성공했다.

## 광주, 서울에 0-2 석패 전남도 전북에 0-1 패

광주 상무가 중위권 도약의 길목에서 발목을 잡혔다. 광주는 지난 14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서울과의 2006 삼성하우젠 프로축구 K-리그 후반기 9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의 김은중과 아디에게 연속골을 허용, 0-2로 패했다. 11위를 유지했던 광주는 이로써 후반기 전적 2승 1무 6패(승점 7점)를 기록하며 14위로 추락했다. 전남 드래곤즈도 이날 전북 현대와의 원정경기서 후반 20분 전북의 김형범에게 결승골을 헌납하며 0-1로 패했고, 순위는 9위(3승 2무 4패·승점 11점)에 머물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설기현, 첼시전 평점 5

'태극전사 프리미어리그 3호' 설기현(27·레딩FC)이 첼시전에 선발 출전해 6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다. 레딩은 리그 3연패를 노리는 최강 첼시를 맞아 선전했으나 아쉬운 자책골을 헌납해 0-1로 분패했다. 영국 축구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은 설기현에 비교적 낮은 평점인 5점을 매겼다.

16일(월) ▲한국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현대-한화)(17:45·SBS스포츠, 17:50·MBC) ▲메이저리그 NL 챔피언십시리즈 (뉴욕 M-세인트루이스)(09:05·Xports)

## 전국체전 광주·전남 출사표

### "3만점 이상 달성 주력"

전 학철

시체육회 사무처장



"3만점 이상 달성과 함께 지난해 보다 더 나은 성적을 거두어 광주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일 경북 김천으로 광주시 선수단을 이끌고 떠난 전학철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과 임원진이 혼연일체가 돼 체계적이고 강도높은 훈련을 소화해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상승한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전 처장은 "특히 200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로서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 다른 시도 선수들과 우정과 친선을 도모, 전국체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처장은 "내년 88회 광주 전국체육대회 준비에도 힘을 쏟아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8위 진입 총력 경주"

정 건철

도체육회 사무처장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 8위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5일 경북 김천 현지로 선수단과 함께 출발한 정건철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부진했던 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겨울 철 동계훈련을 통해 정신력과 강인한 체력을 다져왔고, 특히 명예회복을 위해 선수단이 혼연일체가 돼 강도높은 훈련을 소화했기 때문에 한 자릿 수 진입을 자신한다"고 말했다.

정 처장은 "올 들어 훈련비를 예년체전에 비해 삼환조정하는 등 가맹경기단체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사기가 높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 처장은 "전남도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에 보답할 수 있는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겠다"고 강조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LG JILL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TNGT, laformo, DAKS golf

방수 직접 공사하세요! 방수 전문 대박팀 드림특수방수재 드림코팅아